

해미농협의 불법, 또 있었다

불법가설건축물...서산시의 행정명령으로 철거 지역주민, “해미농협이 서산시 관내 농협들 불법행위 있는지 돌아보게 해”

(사)전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으로 충남지회장 사의 CTN신문사가 지난달 23일 기사로 지적한 불법행위 외 또 다른 불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보기: <http://www.ctnews.kr/article.php?aid=1713856409374782024>
이 같은 사실은 CTN신문사의 기사보도 후 익명의 제보에 대해 서산시 관계부서와 취재 과정에서 나타났다.

해미농협의 불법행위는 가설건축물을 불법으로 사용하다 서산시로부터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고 철거한 것이다.

익명의 제보자는 해미농협은 읍내리 300-1번지에 창고 및 휴게실 등으로 추정되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수년간 운영 했으며, 해당 위치는 화물이 드나드는 출입구 부근이며 해당 건축물을 농협 연면적에 포함하면 2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있어 소방법 및 건축법에 상당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중대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해 해당 건축물 또한 현재는 서산시의 철거명령에 따라 철거된 상태로 해당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 건축물 면적상 최소 주차대수인 12면을 간신히 채운 상태



▲ 해미농협 필요조성시설면적

라고 꼬집었다.

또 농협 측은 준공 당시 건축물 연면적에 따른 의무 조정시설을 조성해 사용승인 후 이를 불법으로 철거하고 인근 관공도로를 넓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건축면적을 높이기 위한 꾀수로 서산시의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제보자의 주장대로라면 해미농협은 갖춰야 할 조정시설 등은 준공시 형식만 갖

춘 뒤 준공 후에는 관공도로, 주차장, 가설건축물 등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A는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해미농협이 오랫동안 불법을 합법처럼 자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이 또한 주민 제보에 의해 밝혀지지 않았다면 불법행위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해미농협의 관행적 불법행위는 서산시 관내 모든 농협에서도 벌어질 수도 있는 문제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서산시 관계자는 해미농협이 수년간 가설건축 등에 대해 불법으로 설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시정명령을 통해 모두 철거토록 했다고 말하고 철거된 자리위에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는 문제 등은 별도로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면 행정 조치토록 하겠다고 했다.

CTN취재진은 해미농협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한바 외출 중으로 연락처를 남겼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

/한성진 기자

성일종 의원 3선 고지 점령, 당 사무총장 선임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정계의 기둥으로 우뚝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서산-태안)이 3선 고지를 점령한 가운데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선임돼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정계의 기둥으로 자리 잡게 됐다.

성 의원은 지난달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를 4.265표차로 제치고 3선 국회의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로써 성일종 의원이 서산시와 태안군 발전으로 내건 공약 ▲서산월빙특구 미래항공 생산 및 연구단지 조성 ▲태안기업도시 미래항공 생산 및 연구단지 조성 ▲수산물 가공 선진화단지 조성 ▲임대형 명품기숙사 건립 ▲서산동부권 문화탐방 테마파크 조성 ▲가로림만 국가해양공원 조성 ▲명품한우특화마을 조성 ▲서산의료원 최첨단 신관 증축 및 서울대병원 교류 확대 ▲태안기업도시 내 명문 국제학교 조기 개교 ▲국제 규격 수영장 포함 명품스포츠센터 건립 ▲유아 실내 체육센



터 추가 건립 및 주말 운동 확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조성 ▲서산-태안 철도 조기 추진 ▲서산-태안 고속도로 조기 추진 ▲이원-대산 도로(해저터널) 연결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금형 기자

대전시설관리공단, 수상한 1급 승진 발령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승진 발령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1급 승진 발령으로 편향적 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직원의 승진임용을 위해서는 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2조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단 측은 지난달 22일과 29일 3급 내지 8급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상정해 승진안을 모두 의결했지만 2급 직원의 1급 승진은 제도개선 등의 이유로 인사위원회에서 부결했는데도 불구하고 3월 11일자로 1급 승진 인사(1명) 발령했다.

특히 공단은 설립 이후 지난 23년 동안 승진 인사를 위해선 내규 제56조에 의거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서가 첨부된 승진후보자를 이사장이 승진 임용했으나 이번 1급의 경우 두 차례 부결 이후 인사위원회 추가 심의의 물론 의결서 없이 승진 인사위원회 심의의 기능이 무력화됐으며 인사권이 남용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더구나 승진을 반대한 인사위원장은

경영본부장이 3월 11일 부재한 틈을 이용,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의 1급과 2급 직원은 인사규정 제33조에 의거 '근무성적평정은 직무성과계약의 평가결과에 따른다'로 되어있어 통상의 근평에서 요구되는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배수범위 등이 일체 존재하지 않고, 승진 심의시 인사규정 등을 준용한다는 조항은 규정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1급 승진 심사안에는 서열순위 등 3월 11일자 승진된 A에게만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는 소문이 파다하고, 1차 인사위원회 당일 담당 처장의 인사위원 개별 방문하는 등 인사 비리는 처음부터 예정되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특히 이번 승진자와 인사담당자는 지난 연말 환경시설 관계 직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사장과 함께 일본 후쿠오카 출장에 동행한 것으로 나타나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정민준 기자

서산시 화장장 건립 필요성 제기

건립추진 10만 서명운동 돌입

충남 서산시에 화장장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장장은 고인의 영고지나 장례식장과 가까운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서산시는 화장장이 없어 타 지역에서 화장 후 장례를 치르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타 지역 화장장 이용에 대한 불편해소와 장례비용 절감을 위해 화장장 설치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화장장 건립추진에 동참하는 시민들은 '서산시

화장장 건립추진 1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서산시에 시민의 의견을 모아 화장장의 건립에 공감하고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화장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경제적 문제로 시외 타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함으로써 화장 비용과 시간까지 배가되는 것은 물론 원정 화장의 고통이 발생하며, 화장장을 구하지 못할 경우 장례식이 연장되어 장례비용이 배 이상 늘어남 ▲소공간 문제로 일반적으로 화장하는 소요시간은 약 1시간 40분 소요되며, 보통 2

시간 안에 화장이 끝나고 유골을 유골함에 모시는 시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지만,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려면 서산시민들은 이동시간까지 2~3배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

서산시민들은 주로 인근 홍성군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천안, 세종, 공주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도 여의치 않을 경우 하루이를 연기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는 고스란히 서산시민들이 겪고 있다.

화장장건립추진 10만명 서명운동을 준

비하고 있는 주민 A는 현재 화장장 시설은 전국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4년 후에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도 화장할 곳을 찾지 못하는 화장절벽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하고 모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사망자가 급증하는데도 화장시설이 부족해 4년후에는 시인 4000구가 갈곳 못찾을 우려가 있다고 보도한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화장장에 대해 혐오시설로 보고 기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우리도 경제력, 시간적 문제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며, 또 서산시 등 각 지자체는 시민과 해결방안에 대해 꾸준한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금형 기자

예산 삼교 성리천 정비 '문 좀 열고 삼시다'

계룡건설 시공, 비산먼지 풀풀...세륜시설은 전시품

충남 예산군 삼교읍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충청권 최고의 건설사로 통하는 계룡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CTN취재진은 24일 오전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을 방문, 비좁은 농로에서 운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그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주민 A는 “공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농부들이 살아가는 시골 마을이라고 그러는 비산먼지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어 더위치는 날씨가 문조차 열 수 없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먼지가 심하게 발생해 생활



에 어렵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공사 관계자로부터 공사가 조만간에 끝나니 그때까지 참아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드러내 보였다.

또 다른 주민 B는 “마을 안전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이고, 공사 관계자들도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라 자꾸 뭐랄 수도 없어 속만 끓이고 있다”고 했다.

서산시환경대책위원회 K위원은 “비산

먼지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호흡기와 눈을 자극해 여러 건강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심장 및 혈관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산먼지는 자연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농업, 축산업 및 수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반드시 발생억제를 위해 공사 차량 및 관계자 차량 진·출입로 세륜기 설치, 비산먼지 발생 현장에 대한 방진막 설치, 살수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곳은 비산먼지 방지 대책을 위한 시설물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설치해야 할 세륜기는 형식적으로 가져다 놓아 전시품이란 비난까지 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토목건설계 관계자는

“우리 같은 작은 건설사도 이 모든 것을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는데 총청권 대표 주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 계룡건설이 이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아무리 농촌 마을에서 진행되는 공사라고 하지만 이렇게 무방비로 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비쳐 모든 건설사가 도매급으로 욕을 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CTN 취재진은 이날 오후 발주처인 예산군 안전관리과에 비산먼지 발생 문제점 외도 안전시설물, 위기대비 부실시공, 하천오염원 발생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문의하려 했으나 관계자 출장 등으로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지난 2022년 12월 착공 오는 2026년 11월 준공 목표로 예산군이 발주하고, 서영엔지니어링이 책임건설사업관리단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계룡건설산업이 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CTN과 교육타임즈 취재진은 문제점에 대해 보강 취재 할 예정이다.

/기동취재팀

한국방송통신대 고성환 총장, 서산학습관 방문 간담회 개최

대전충남지역대학장호준 학장, 서산시 동문회 최형식 회장, 서산대안 학생회박헌 회장등 30여명 참석



▲ 총장과 함께하는 간담회 종료 후 단체 기념 사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고성환)는 지난 21일 오후 5시 30분 충남 서산시 학습관에서 '총장과 함께하는, 서산시 학습관 활성화'를 위한 동문 및 학생회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고성환 총장과 대전충남 지역대학 장호준 학장, (재)서산장학재단 조규선 이사장(동문회 자문위원), 제6대 서산대안 동문회 최형식 회장, 제42대 서산대안 학생회 박헌 회장 등 30여 명의 동문과 학생들이 참석해, △서산시 학습관 부지 이전 및 활성화 방안 △동문회 및 학생회 활동의 내실화 방안 △방송대 50-500 발전기금 모금 프로젝트 활성화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고성환 총장은 개회사에서, “서산-태안 동문회 및 학생회가 타 지역 보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직접 방문해 격려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행정 지원과 관심을 갖을 것이며, 동문 및 학생회 여러분들도 학교 발전에 많은 관

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호준 학장(대전충남지역대학)은, 전국에 위치한 학습관 통폐합 관련하여, 학생 인원수, 학습관 이용 현황, 학생회의 활성화 여부, 학생회 행사 활동 참여여부 등 요소들이 학습관 존립의 평가 기준에 중요한 판단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며, 앞으로 동문회 및 학생회가 상호 협력하는 물론, 서산시의 행정 협조를 통해, 넓은 주차장과 독립된 학습 공간을 갖춘 서산 학습관 확보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최형식 동문회장과 박헌 학생회장은 “총장님과 학장님의 서산시 학습관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며, “동문 및 학생회가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간담회 종료 후 만찬장으로 자리를 옮겨, 방송대 50-500 발전기금 모금 프로젝트에 대한 대화가 계속 되었으며, 만찬 후 단체 사진 촬영을 끝으로 뜻깊은 자리를 마무리했다.

/기금형박순신 기자

청산수목원 설립자, 고 청산 신세철 선생 흉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흉상제막식 오늘 31일, 청산수목원 밀레의 정원

충남 태안군 남면에 위치한 청산수목원 설립자이며 지역사회에 큰 공적을 남긴 청산 신세철 선생의 생전 모습을 새긴 흉상제막식이 오는 31일 청산수목원 밀레의 정원에서 열린다.

청산 신세철 선생 흉상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영수)에 따르면 고인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고,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신념하에 전문

교육이수, 화훼재배에 전력을 화훼산업 육성에 앞장서 전국 새농민상을 수상했다.

이후 탁월한 선견지명과 창의적인 발상으로 1990년 청산수목원을 설립해 다수의 희귀수종과 200여종의 연(연꽃)을 수집, 재배해 전국에서 우수한 휴양, 관광 명소인 수목원으로 성장시켜 봄에는 홍가시나무, 꽃장포, 여름에는 수국, 연꽃, 가을에는 팜파스그래스, 핑크몰리 등을

소재로 계절별 전국축제에 승화시켰으며, 관광객 유치로 지역에 소득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했으며, 특히 성실 근면해 고무신에 작업복이 일상복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헌신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

청산 신세철 선생은 남면발전협의회를 설립해 지역발전을 앞당겼으며, 마을에 향토박물관을 설립 운영 향토문화발굴 및 남면시대 발간, 독립운동가 문양목 선생 선양사업 등, 농촌의 고단한 삶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소명을 가하기 위해 헌신하다 2019년 12월 불의의 사고로 71세에 생을 마감했다.

이영수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는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추모하고 공을 오래 기리기 위해 각 사회단체 및 주민의 뜻을 모아 고인의 흉상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흉상건립비 약 2,000만원은 유가족과 추진위원회, 뜻을 같이하는 많은 분이 참여 의미가 크다”고 말하고 “많은 분들의 협조에 감사하다”고 했다.

흉상제막식은 5월 31일 오후 2시 청산수목원 밀레의 정원에서 열린다.

/기금형기자·이재필 기자